

'5·18 사적지' 적십자병원 매입 진통

광주시 수의계약 요청 불구 서남재단 채권단 거부...5월4일 2차 공개입찰 "5월 정신 깃든 역사적 장소" 5월 단체 등 일반매각 반대·원형 보존 촉구

광주시가 추진중인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제11호 '옛 광주적십자병원' 매입이 진통을 겪고 있다. 광주적십자병원은 1980년 5월 계엄군의 총칼에 부상 입은 수많은 광주시민들이 치료를 받고, 이들을 위한 헌혈 행렬이 이어진 '광주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광주시의회가 옛 적십자병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했다. 매입 예산 90억원도 편성한 상태로 5월 중순으로 예정된 시의회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 확보할 계획이다.



옛 광주적십자병원 공개매각을 앞둔 22일 오전 광주 동구 불로동 옛 광주적십자병원 부지 앞에서 5·18단체가 병원 원형 보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적십자병원 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또 있다.

적십자병원 처분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서남학원재단 채권단이 공개매각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수의계약'을 요청했지만 채권단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채권단은 5월4일 2차 경쟁입찰을 공고한 상태다.

1차 입찰에서는 참여한 기관이나 개인이 없어 유찰된 상태로, 2차 입찰 최저 감정가는 88억 5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시는 2차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도 발생할 수 있다. 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는 참여자가 있으면 부지 매입 자체가 힘들 수 있고, 경쟁입찰인 만큼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 또다시 유찰돼 부지 매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채권단과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경쟁입찰을 고수해 2차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라며 "5월 광주정신의 깃든 역사적인 장소인 만큼 반드시 매입해 시민

들이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5월 단체 등도 이날 옛 적십자병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적십자병원의 공개 매각 반대와 원형 보존을 촉구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는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2차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라며 "5월 광주정신의 깃든 역사적인 장소인 만큼 반드시 매입해 시민

처해 있어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며 "역사적 공간인 옛 광주적십자병원의 민간매각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서남병원 청산인은 옛 광주적십자병원의 민간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이 곳을 5·18과 광주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원형 그대로 보존된 유일한 5·18 사적지로서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며 "광주적십자병원 원형 보존은 5·18선양사업은 물론 5·18선상규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옛 광주적십자병원은 1980년 5·18 광주항쟁의 중심지였던 옛 전남도청과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수많은 부상자를 치료하고 헌혈 등을 통해 시민들의 목숨을 살려낸 곳이다.

광주 동구 불로동에 있는 적십자병원은 토지 2800여㎡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1954년 건립돼 공공보건의료기관 역할을 하다가 1995년 서남학원 재단이 병원을 인수해 서남대 의대 병원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재단 측은 경영난 등을 이유로 2014년 병원을 폐쇄했고, 지난해 6월 교육부로부터 재산매각 승인을 받아 공개 매각을 추진했다.

5·18단체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1980년 5월 광주의 아픔과 공동체정신이 깃든 적십자병원 매입을 요구하고 있다.

신봉우 기자

"12억 보험금" vs "증명 어려워" 50대 남편, 살인 혐의 무죄...왜?

삼마를 선착장에서 아내가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받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업무 중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해 금고 3년을 선고한 가운데 살인 등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진행한 현장검증을 살펴보면 추락 방지용 난간으로부터 1~1.2m 떨어진 곳에서 중립기어 상태로 세운 차량을 놓았을 경우 운전자가 내리고 운전석 문을 닫을 때까지 차량이 경사면을 상당한 시간 동안 내려가지 않았지만 조수석에 탑승한 사람이 1회 상체를 들어 올리는 움직임을 취했을 때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업무 중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해 금고 3년을 선고한 가운데 살인 등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진행한 현장검증을 살펴보면 추락 방지용 난간으로부터 1~1.2m 떨어진 곳에서 중립기어 상태로 세운 차량을 놓았을 경우 운전자가 내리고 운전석 문을 닫을 때까지 차량이 경사면을 상당한 시간 동안 내려가지 않았지만 조수석에 탑승한 사람이 1회 상체를 들어 올리는 움직임을 취했을 때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보험금으로 살해 동기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워

2심 재판부는 1심이 부인의 사망으로 지급될 10억원이 넘는 사망보험금이 이 사건의 범행에 대한 주된 동기라고 판단했지만 증거 등을 보면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살인의 동기가 형성됐다고 수긍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A씨의 아내를 새롭게 5개 보험을 가입해 사망할 경우 11억5000만원 내지 12억5000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어를 중립 상태에 놓은 것에 대해서도 혼동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A씨가 의도적으로 경사면을 따라 내려갈 수 있는 지점에 승용차를 정차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차량, 경사면 따라 이동 가능성 존재

2심 재판부는 살인과 자동차 매몰 혐의인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실을 살펴보면 A씨의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조수석에 타고 있는 아내가 숨진 점, A씨가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뒷 범퍼 부분이 추락 방지용 난간에 충격한 점, 당시 승용차의 기어가 중립상태였고

강이라 기자

"10분 강의후 과제폭탄 투척"...온라인 1학기 대학생 '부글'

"질 떨어지는 원격수업, 추가비용까지...등록금 돌려달라" 학교 측 "온라인 강의로 비용은 추가, 절감은 없어" 난감

"강의 듣는 시간은 10~20분인데 과제가 하루에도 3~4개씩 배포돼요. 과제 한개 하는데 1시간이 걸리는데 언제 과제가 나올지도 모르고 매일 폭탄 처리하느라 알바도 못가요." (A교육대학교 학생)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국의 대학생들이 두 달 이상 원격수업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학가에서 온라인

수업 질을 탓하며 불만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은 특히 대면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의 분위기를 교수가 알아챌 수 없어 동문서답형 강의가 일어나며 일방적인 수업방식이 진행된다고 항의했다.

이화여대에 재학 중인 박모씨(23·여)는 "인문학 수업을 듣다가 개념이 애매해서 온라인으로

물어봤는데 교수가 현장 수업이었던 적당히 끊고 설명해줬을 텐데 온라인에서는 (서로 어떤 상황인지 표정을 볼 수 없으니) 한 시간 내내 그 질문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 거다"라며 "학생들 표정이 잘 보이지 않고 하나까 문제"라고 꼬집었다.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오모씨(26)는 "전보다 질이 떨어지는 수업을 듣고 있고 학교 시설도 못쓰고 있는데 온라인 강의로 스텝 전환하면서 추가 비용이 든 것도 어느 정도 알겠지만 전체 학생들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환불해



줘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 소재 한 대학 관계자는 "학교 입장에서는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들어갔지 절감되는 것도 없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등록금 반환 이야기가 나오면) 논의는 해봐야겠지만 쉬운 이야기는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장성진품한우식육식당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37-56 TEL : 061)394-0092